7강 마음의 위상학 2: 이드, 자아, 그리고 초자아

1. 자아에게는 대립될 수 있는 세 가지 자극

◇ 인간 존재로 성장해 가는 아이가 부모에 의존하여 사는 긴 유아기의 침전물로 자아 속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기관이 형성되는 데, 여기서 부모의 영향은 지속된다. 이 기관은 '초자아das Über-Ich=superego'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 초자아가 자아와 구별되거나 자아에 대립하는 한에서, 그것은 자아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3의 힘이다. 자아의 행위는 그것이 자아, 초자아 및 실재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을 때 올바른 것이다. 자아와 초자아 사이 관계의 세부 사항은 보통 아이의 부모에 대한 관계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부모의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모의 개인적 존재만이 아니다. 부모에 의해 이어지는 가족, 인종 및 민족 전통의 영향과 부모가 대변하는 각각의 사회적 환경의 요구도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초자아는 개인 발달 과정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전승자와 부모의 대체 인물 편에서 오는 기여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교육자, 공공의 모범, 사회에서 숭배되는 이상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드와 초자아가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영향들을 대변하는 바, 이드는 유전된 과거의 영향을, 초자아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로부터 넘겨받은 과거의 영향을 대변한다. 반면 자아는 스스로 체험한 것, 따라서 우연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의해 주로 규정된다.『정신분석학 개요』(1940)

-하나는 이드라는 장소에서 정신적으로 표현되는 내적인 욕망

-둘째는 외부 세계의 현재 자극

-마지막 셋째는 기억의 지평에서 존재하는 과거의 압도적인 자극에 대한 흔적이다. 이 마지막의 자극은 현재라는 시간 지평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정신적인 장소로서 '초자아'로 존재할 뿐이다.

2. 프로이트는 이드-자아-초자아로 구성된 마음의 위상학을 완성한다.

-이드와 초자아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전자가 인간의 신체로부터 기원하는 본능의 힘을 상징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사회성으로부터 기원하는 문명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자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드와 초자아는 '과거'라는 시간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드가 유전된 과거의 영향을 나타낸다면, 초자아는 역사·문화적 과거의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직 자아만이 현재라는 시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외부 세계의 자극이나 초자아는 모두 외부로부터, 즉 타자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